
 <b>해양수산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 일시	2021. 1. 25.(월) 총 3매(본문 2, 참고 1)	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장 서동현, 담당 김경균</li> <li>☎ (061)280-1687</li> </ul>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목포북항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본격 추진

- 목포해수청, 올해 2월 용역 착수...2024년까지 완공 -

목포북항에 제2의 진입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된다. 금회 개설되는 진입도로(910m)는 목포해대~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구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.



목포북항은 서해어업관리단,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, 작년 말 목포수협이 목포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번 용역은 '제4차 항만기본계획(2021~2030)'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회 설계비 11억 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목포해수청은 용역착수 후 목포시를 비롯해 북항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.

현재 북항 배후부지에 진·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항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노선이였으나, 이번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(목포해대~서해어업관리단) 개설을 통해 기존 북항 진·출입로의 대체도로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기존 도로의 통행기능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와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장귀포 목포해수청장은 “2020년 말 착공한 북항 어선물양장(413m) 건설공사와 더불어 금회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목포 북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<p>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,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</p>
--	---	--

## 위치도 및 노선계획(안)

□ 위치도



☐ 노선계획(안)

